지리산권 공동 발전 위한 맞손

지리산권 지자체장 - 행안부 장관,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공동건의문 전달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장이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가 서명한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작년 10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초광역협력은 기능적·공간적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超)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이며, "인접지역 간 협력의 한 형태로서 경쟁력이 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지향"하는 메가시티와는 구별된다.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에서 "민선1기 단체장협의회를 시작(1998년)으로 2008년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 현재까지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 연계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리산권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지역주도의 연계·협력 우수사례가 많기로 손꼽히는 민간 주도로 시작해 국가적 지원이 된 사례로, 대한민국 1호로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과 국내 최초의 국가 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난해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약 36억 규모의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이 지리산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통해서 시행된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지리산권 농산어촌의 체감도를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자치분권 정책의 시범실시)에 따라 제주·세종에 이은 새로운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로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천문학적 단위의 국책사업 확보로만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 주민주도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논의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자체 개발 '회문콩' 확대·보급

기계수확에 적합한 다수확 신품종

장류의 고장 순창군이 자체 개발한 콩 신품종 '회문'의 확대 보급사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신품종 '회문'은 지난 2019년부터 된장, 간장 등 장류 원료에 적합한 기계수확에 이로운 다수확 신품종을 개발하고자 순창군이 서울대 이석하 교수팀과 공동연구 끝에 개발한 콩이다.

순창 콩 신품종 '회문'은 기존의 콩 품종과 비교해 콩 꼬투리가 맺히는 높이가 높아 기계수확 시 수확량 손실을 크게 개선한 품종으로 지난해 순창 콩 품종평가회에서 우수성을 확인한 바 있다.

순창 회문콩은 기존 대원콩 품종보다 개화기가 약 8일 빠르며, 마디수 42%, 분지수 16% 정도가 더 많고, 콩 수도 3~4개가 기존 품종보다 많아 포기당 수확량이 33~127%가 높았다.

이번 회문콩 시범보급사업은 100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당 2.5kg씩 공급한다. 희망농가는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콩 재배 영상 교육을 시청한 후 오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재배신청을 하면 된다.

'회문'은 개화한 이후에도 줄기의 길이 생장을 계속하는 무한형 초형이기 때문에 태풍과 가을장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지난해 1.2ha 실증재배에서 적기 적심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적심을 통한 측지 발생과 도복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회문의 취약점 해결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회문콩 시범 종자는 순창군 고추장의 지역 브랜드 강화와 기계수확 및 다수확에 따른 농가 경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문콩 시범보급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 농업인 상담소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총력'

코로나19 장기화 속 농업인 경영 도움… 4개 권역 22종 837대 반값 임대료 시행

임실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줄여주는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 권역 22종 837대 전 기종 농기계에 대해 반값 임대료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과 함께 일부 농기계에 숙련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사용법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 전 면허가 필요한 일부 기종(굴착기, 스키로더 등)의 경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운반 대행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사업 홍보 시 농작업 안전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군은 관내 차량 미보유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운반대행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작년에는 총 120건의 대행 실적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았던 보리 및 하계조사료 수확 작업단 운영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 영세농들을 위한 찾아가는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단은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영농 불편 해소와 안정적 농작물 생산 지원을 위한 것이다.

관내 70세 이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로터리, 두둑, 비닐멀칭 작업 등을 직접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고령 영세농들의 호응의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중앙부처 방문

하태욱 남원부시장,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기획재정부에 지원 요청

남원시는 하태욱 남원부시장이 남원시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를 17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하 부시장은 김종훈 차관을 면담하고, 시에서 역점 추진중인 LX드론활용센터 사업계획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LX드론활용센터는 시가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공모로 유치한 시설로, 2023년도 준공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수인 상황이다.

이어 환경부를 방문해 오종훈 생활폐기물과장을 면담하고 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의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는 페트병 수거량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해 별도로 페트병 선별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해서이다.

특히 하 부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전반적인 남원시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8월 4일 종료·홍보 강화

순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원하는 주민은 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갖고 순창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은 보증서 한 장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시 토지는 민원과 지적계, 건물은 민원과 건축계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전북 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임실군이 2022년 전북 농민 공익수당을 이달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당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 농가이다.

양봉농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고 도내에서 등록기준(토종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 농가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

남원시가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추진한다.

추진에서 가축의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예방,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정기준에 적합한 축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 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연중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 획득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농가는 남원시 및 정부에서 지원되는 축산정책 사업에 있어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남원시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이 총 105개소(한·육우 38, 낙농 2, 양돈 8, 양계 57)로 매년 지정농장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